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종합계획설명회 열려… 추진 방향·종합계획 등 공유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종합계획설명회가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2일 무주읍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올해 축제의 추진 방향과 공간 구성 계획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대의원들과 기관·사회단체장 등 무주군민 2백여 명이 참석해 축제 기록 영상 시청, 종합계획 공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박찬주 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은 "무주반딧불축제 덕분에 무주를 반딧불이의 고장, 자연특별시, 청정무주로 불리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엄마, 아빠 손 잡고 찾아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가 돼서 자녀들과 함께 오는 축제가 된 만큼 올해도 친환경 가족 축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는 9월 6일부터 14일까지 무주군 일원(등나무운동장, 남지공원, 남대천변 등)에서 개최되며,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9일간 체험·환경탐사·문화예술·주간경관·야간조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종합계획설명회가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2일 무주읍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됐다.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를 기반으로 친환경 축제의 핵심을 느낄 수 있는 '반딧불이 주제관', '반딧불이 신비탐사', '1박2일 생태체험', '반디별 소풍', '남대천 생생플러스(치어방구 & 소원지 끝우기)' 등이 개최되며, 음악분수와 함께 선보이는 한밤중 '멀티미디어 쇼 in 무주(별빛다리 카운트다운 및 파사드 & 음악분수 & 낙화놀이 & 레이저쇼 & 불꽃놀이)'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친환경, 반딧불, ESC, '체험'이라고 하는 반딧불 축제의 브랜드 가치와 '덕유산', '태권도원', '와인동굴', '반디랜드' 등 지역의 관광자원을 제대로 살린 축제로 만들 것"이라며 "친환경 축제는 본분을 지키며 방문객 편의와 접객,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다양한 변화 시도에 기대를 가져 달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전략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부서별 비전·사업 공유

무주군이 새 정부 국정과제와 부처별 정책 방향에 발맞춰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 의 시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전략사업 발굴에 나섰다.

지난 22일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최정일 부군수와 국·시·과장, 그리고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 전략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부서별 비전과 전략사업을 공유했다.



보고회는 오는 25일과 27일에도 진행될 예정으로, 관광을 비롯한 지역개발, 생활, 안전, 환경, 인구, 복지, 보건의료 등 분야별 전략사업 아이템 130여 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정부가 국민성

집행률 100% 월을 조성하고 AI, 반도체, 바이오, 방위산업 등 미래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라며 "무주군도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기반 구축에 매진할 때리는 것을 명심하고 '돈 버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굴된 전략사업은 반드시 구체화해 2026년도 무주군 본예산(자체 예산) 신규사업이든, 2027년~2028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대응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각 부서에서 발굴한 창의적이고 실행가능한 아이디어가 모여 무주군 발전, 나아가 군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사랑상품권 한도액 30만원 상향

무주군은 9월부터 무주사랑상품권의 한도액이 30만 원 증액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의 소비 진작 지원 정책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기존 월 7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지류 상품권 최대 30만 원 포함)가 가능해 장비구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산악 관광 활성화 '맞손'

장수군-덕유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협조체계 구축 등 협약

장수군은 지난 20일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과 '지역 산악 관광 활성화 및 탐방객 안전관리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와 인길선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남덕유산 신규 탐방로 개설에 따른 탐방로 안전관리와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탐방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신규 탐방로 개설에 따른 국립공원 이용 활성화 협조 체계 구축 △탐방로 통제 및 해제 등 탐방객 안전관리 업무협력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사항을 위한 협조체계 마련 등이다.

신규 탐방로는 남덕유산 '토목동~



월성재' 구간으로 그동안 지정 탐방로가 아니어서 장수군 산을 찾은 탐방객에게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탐방로 개설로 문제가 해결됐다.

이에 장수군은 남덕유산을 찾는 탐방객이 많아지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군 산악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남덕유산 신규 탐방로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국제 산 뿐만 아니라 바다분수 등 수경 시설과 휴게공간을 운영하고 특별행사와 월별 이벤트를 추진하여 자연 속에서 편안한 힐링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지역 소식 톱

진안군, 평당퐁당 야외 족욕장 월별 이벤트 추진

진안군이 오는 29~30일까지 2일간 미야산 북부 아외족욕장을 중심으로, 평당퐁당 족욕소품 8월 물총놀이 이벤트'를 개최한다.

아외족욕장에서는 매월 다른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8월 말 까지 이어진 무더위에 지친 관광객에게 시원한 얼음족욕체험, DJ와 함께하는 물총대전, 흥삼 레몬에이드 시음이벤트 등 더위를 잊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미야산 능촌테마공원 내 아외족욕장은 지난 7월 개장하여 매주 목~일 오후 운영(11:00~17:00)되고 있으며, 아외족욕장 뿐만 아니라 바다분수 등 수경 시설과 휴게공간을 운영하고 특별행사와 월별 이벤트를 추진하여 자연 속에서 편안한 힐링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전자는 우태만 기자

장수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장수군이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높이고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중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정확한 행정자료를 확보하고 복지사각지대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조사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해 오는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 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눠 실시한다.

장수군은 참여 군민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오는 31일 자정까지 비대면 조사를 먼저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대상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 된다.

이후 내달 1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는 해당 마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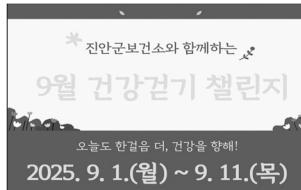
진안군보건소, 9월 워크온 건강걷기 챌린지 운영

진안군보건소(소장 문민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일까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9월 건강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군은 기간 내 총 8만보 걷기를 목표로 정했으며(하루 최대 8천보인정), 기간 내 목표를 달성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상품을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진안군민 또는 진안군 내 직장인다면 누구나 가능하며 △워크온 앱 설치 △진안군 공식 커뮤니티 기입 △챌린지 화면에서 '예약하기 또는 참여하기' 클릭 △스마트폰 소지하고 걷기 △걷기 목표 달성 후 '응모하기'를 누르면 된다.

이번 걷기 챌린지는 8월 25일부터 사



진안군마을만들기협의회, 찾아가는 의학·의약교실 운영

진안군마을만들기협의회(대표 장수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2025 농촌재능나눔 일반단체 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도 '찾아가는 의학·의약교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첫 활동은 오는 26일 원연면마을에서 시작되며, 이어 은천마을, 상가마을, 원동정마을, 미조마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



은 기초 건강 상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 생활습관 개선 등 실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